「露韓小辭典」의 國語學的 價値

郭 忠 求*

I

「露韓小辭典」의 原名은「Опытъ Краткаго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로서 제정러시아 시대인 1904년 카잔(Казань)에서 편찬 간행되었다. 原名에 따른다면 「試驗的인 露韓小辭典」이라 해야 할 것이나 필자가 이를 줄여서 편의상 「露韓小辭典」이라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기만 한 이 사전은 Ramstedt 박사가 그의 著書인 *A Korean Grammar* (1939) 머리말에서 이 사전의 서지적인 내용과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어의 방언적 성격을 간략하게 언급해 놓은 인연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사전은 국내 학계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만 Koncevich (1971), 고 송무 (1980) 교수가 러시아에서의 한국학 연구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전의 간행지와 간행년도를 밝힌 바 있고, 또 독일 Bochum 대학의 Adami (1982) 교수가 이 사전의 소재와 그 편찬 경위 및 국어 연구자료로서의 價値의 一端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 사전은 국어학 연구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국어와 관련된 外國語 辭典의 編纂史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가치있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이 책이 세계적으로도 稀覯에 속하는 貴重本이어서 쉽사리 접할 수 없었던 데에 말미암는다.[1]

---

* 충북대 국문과 조교수

1)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露韓小辭典」은 핀란드 헬싱키대학 도서관의 「람스테트 文庫」 소장본의 複寫本이다. 同大學 고 송무 교수의 厚意에 의하여 入手하게 되었는바, 고敎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露韓小辭典」은 拙稿(1986c)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19세기 末葉 朝鮮의 東北地域에서 러시아의 沿海州로 移住한 移住民 子女의 러시아語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편찬되었다. 이 사전은 푸찔로의 「로한ㅈ뎐」에 이어 러시아에서 刊行된 두번째의 露韓辭典으로 사전의 體裁나 형식, 한국어의 表記가 開港期에 편찬된 여타의 對譯辭典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이 시기에 간행된 일반 대역사전류들에 등재된 한국어는 주로 中部方言으로, 그 表記에 있어서는 傳統的인 表記法을 襲用하였지만 이 사전의 한국어는 咸鏡北道 北部地域 方言으로 그 方言의 실제 發話音을 악센트나 音長까지 고려하여 精密轉寫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표기에는 일체 한글 자모를 이용하지 않고, 끼릴문자 계통의 音聲轉寫用 문자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개항기의 대역사전들, 특히 「로한ㅈ뎐」은 사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요건들이 결여된, 辭典이라고 하기보다는 對譯語彙集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비해 이 사전은 어느 정도 사전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어 모름지기 露韓辭典의 嚆矢라 할 만하다.

이 사전 편찬자들은 러시아語와 한국어의 文法을 이해하고서 그것을 사전 편찬에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풀이항에는 한국어 단어의 문법범주, 類意語, 同音語, 發音(複合語의 경우 複合語를 구성하고 있는 形態素를 分析해 내고 그것들이 결합할 때의 실제 발화음) 혹은 曲用 및 活用形, 用例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本稿는 이와 같은 「露韓小辭典」의 전반적인 체재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 이 사전이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을 드러내 보이려는 데 그 목

람스테트 박사의 소장본에는 각 페이지 사이에 간지가 끼워져 있는데 이 간지에는 박사 친필의 메모가 적혀 있다. 메모 내용은 이 사전의 한국어 東北方言과 중부방언을 비교하여 한국어의 음운, 형태 변화를 기술한 것이거나, 몽고 터어키 만주어 등 제민족어의 어휘를 한국어의 어휘와 비교한 내용을 片片히 기록한 것이어서 얼핏 보기에는 *Studies in Korean Etymology*의 草稿를 聯想케 한다. 이는 람스테트 박사가 韓國語와 比較硏究를 위하여 이 사전자료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람스테트 박사의 手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한다. 그리고 독일 보훔大學의 Adami 교수가 보았다고 하는 복사본도 바로 이 「람스테트文庫」 소장本의 복사본이다.

적이 있다.

제 1 장에서는 이 사전의 편찬 動機, 經緯, 目的 및 辭典의 체재 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2 장에서는 한국어를 전사한 轉寫文字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 사전 안의 한국어가 한국의 東北方言, 그 중에서도 이른바 六鎭地域이라 일컬어지는 咸鏡北道 北部의 方言임을 밝혀 볼 것이다.

한편 이 사전이 발견됨으로 해서 Ramstedt 박사가 국어음운사나 형태사의 再構에 이용한 北韓方言 資料들의 出典과 그들 자료들의 제반 성격을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 람스테트 박사의 한국어 연구의 여러 부면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 장은 Ramstedt 박사의 한국어 연구 논저들 속에 들어 있는 한국어 방언 중 어떤 것이 이 사전에서 전재한 것이며, 그가 이 방언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의 한국어 연구에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하는 점을 疎略하게나마 다루어 볼 것이다.

II

1.0 「露韓小辭典」에 대한 서지적 검토

이 사전은 가로 10.2cm× 세로 15.2cm, 面數 xviii+138str. 의 小册子이다. 册名은 「Опытъ Краткаго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시험적인 露韓小辭典」이 된다. 이로 보면 이 사전은 처음부터 완전한 露韓辭典을 겨냥하고 편찬된 것이 아니고 試作的인 性格을 띠고 엮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전은 「露韓會話」와 같이 러시아正敎宣敎協會(Православное Миссіонерское Общество)의 출판 허가를 얻어 출판되었다. ii 페이지에는 刊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러시아正敎宣敎協會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음. 1904 년 9 월 20 일, 카잔.
> 번역위원회의 代表者는 카잔대학 교수 엠. 마샤노프(M. Машанов)임.

이 刊記는 이 사전의 발행년월일, 발행처 및 사전 편찬 책임자에 대한 기록인데 「露韓會話」와는 발행 月日만 다를 뿐이어서 두 책이 같은

기관의 같은 인물들에 의하여 엮어졌음을 알 수 있다.

1.1 iii 페이지에는 사전 편찬의 動機와 經緯 및 過程을 상세히 밝힌 머리글이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語 표제항목의 선정 과정, 한국어 제보자의 신원, 사전의 이용 범위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이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原文을 번역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우리의 먼 동쪽 邊境에는 그들 나라의 北部地方 出身者인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沿海州의 南우수리 管區 居住民인 이들 한국인들의 자녀들은 러시아 학교에 다니고 또 러시아語로 된 책으로 공부한다. 이들 학교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이 시험적인 사전이 편찬되었다.

이 사전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엘. 엔. 톨스토이(Л.Н. Толстой)의 「새 綴字敎科書」(Новая Азбука) (24 판, 모스크바 : 1900 년)에 포함되어 있는 단지 그러한 러시아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다. 이 「새 綴字敎科書」가 異國人들을 위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용되었으며, 게다가 이것은 매우 단순하게 쓰여지며 그리고 동시에 가장 러시아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알맞다.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위 참고서로부터 단어를 발췌할 때에 생략되었다. 대명사는 나중에 스미르노프스키의 책 중에서 「러시아語 文法 敎科書」 제 1 편 '語源'을 빌어왔다. 전치사는 1899 년 카잔에서 간행된 소책자 「러시아語 전치사」로부터 취해졌다. 접속사는 오직 7 어만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감탄사들은 전혀 사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얼마간의 명사들은 번역상의 어려움으로 삭제하였다. 어떤 단어들은 본 사전에 싣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포함시켰다. 예를들면, 단어 중국인—중국, 한국인—한국, 러시아인—러시아, 일본인—일본.

그러므로, 이 시험적인 사전은 제일 간단하게 씌어진 러시아 책을 읽을 때에 충분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한국어의 記入은 南우수리 지역 출신 한국인들 중의 한 사람의 발음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그 지역의 요구에 봉사하기 위한 이 소책자의 사명과 일치한다.

위 글 내용에 의하면 이 사전의 표제항의 러시아어 단어는 러시아 文豪 톨스토이가 지은 「새 綴字敎科書」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인데, 필요

에 따라 표제항목의 수를 加減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전사에 이용된 전사문자들도 이 책에 들어있는 끼릴문자이거나 그것을 응용한 것인 듯하다.

1.2 序文의 내용과 辭典의 體裁

1.2.1 序文(Предисловіе)에는 이 辭典의 체재와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이 사전의 여러 특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사전 序文의 내용을 요약하여 사전 편찬자들의 사전 편찬 방식과 편찬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1.2.2에서는 序文과 本文 풀이항의 注釋方式을 아울러 검토하여 「露韓小辭典」의 체재와 그 특징을 밝히기로 한다.

序文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부분의 내용을 要約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표제어의 풀이 방식.

*본문에서 표제어에 대한 주석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곳을 다시 이끌어 내어 보충설명을 가한 補遺部分(전치사, 부사 если, 한국어 접두사 '참-'의 意味와 用法)

*한국인들의 姓名에 대해서는 *Grammaire Coréenne*(1881, Yokohama str. 19-23)의 Article Ⅵ, Des noms propres et titres honorifiques을 참고할 것.

나. *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어를 전사한 轉寫文字 體系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ɥ"'와 'Κ'가 지시하는 한국어의 音聲特徵과 그 例를 소개함.

*이 사전에서 쓰이고 있는 기호, '[']', =, |, ||'를 제시하고, 이 기호들의 指示意味를 예를 들어 설명함.

다. *한국어의 기본격(Основной Падеж)과 主格(Именительный Падеж)형에 대한 설명과 두 형태의 식별방법. 兩格의 사전 안에서의 표시 방법.

*한국어 형용사는 '-ge' (kət, kəši)로 표시됨. 그러나, 33페이지부터는 동사와 같이 어간에 '-gi'를 접미시켜 표시하였다고 함.

*형용사의 어간에 접미되는 '-ge' 이외에 尊稱語尾 '-k'e'에 대한 說明 및 用例.

*한국어에서는 有聲音이 語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 다만,

語頭의 無聲子音은 複合語 형성이나 派生, 屈折 등 형태소의 接合 과정에서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만 無聲音이 有聲音으로 變한다고 함.

*한국어에는 악센트가 있다는 점과 이 악센트는 일정 환경에서 移動하지만, 이 사전에서는 주위의 단어들과의 모든 관계를 떠나서 독립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점을 언급. 이 사전에서 악센트 표지는 엄격한 검사를 필요로한다는 점 명시. 전사문자에 보조부호(diacritic mark)가 붙어서 악센트 표지가 표시되지 않은 단어의 경우, 악센트가 놓이는 음절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

*러시아語의 完了體와 현재시제를 한국어로 나타내는 방법.

라. *이 사전의 편집 구성은 카잔사범학교(Казанская Учительская Семинарія) 재학생인 六人의 한국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한국인들의 성명과 출신지를 밝혀 놓음.

*사전 안의 한국어는 A.K. Хан(韓氏)의 발음을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힘.

*65 페이지까지의 사전의 印刷와 이 序文은 梁氏(М.П. Лян)의 참여하에 이루어졌고, 또 梁氏는 몇몇 서울 방언을 소개했다고 함.

그리고 序文의 끝 부분에 가서는 '약간의 誤謬'(Некоторыя Погрешности)이라 하여 사전 本文의 誤植 部分을 가려 뽑은 다음 訂正하여 바로잡아 놓았다.

1.2.2 「露韓小辭典」의 체재와 그 특징

이 사전은 이 사전의 머리글에서 본 바와 같이 편찬 목적이 다른 對譯辭典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일반 대역사전이 外國語의 학습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이 사전은 러시아人이 自國 領內에 거주하는 小數 異民族인 한국인을 러시아 公民으로 만들고 또 그들에게 러시아 정교를 傳播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러시아語 교육을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전의 편찬 방식도 다른 대역사전과는 사뭇 다르게 되어 있다.

이 사전은 표제어인 러시아어 단어는 물론 풀이말의 한국어도 끼릴계통의 문자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이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일반 외국어 사전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특

이한 경우로서 이 사전의 편찬 목적이나 사전 이용자의 특수한 여건이 고려된 때문이다.

source language가 그 言語의 문자로 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전의 경우처럼 한국어가 끼릴 문자로 전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전이 끼릴 문자에 대하여 상당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끼릴 문자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한국인은 이 사전의 이용이 매우 不便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는 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영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풀이항의 표제어에 대한 注釋은 대개의 경우 표준어나 표준어와 同等한 지위를 누리는, 文化的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지역의 方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이 사전의 풀이말은 한국어 방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도 異質的인 한국의 東北方言이라는 점이다. 이도 역시 이 사전 편찬의 目的과 背景이 다른 對譯辭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지만 매우 異例的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사전의 이용자들은 咸鏡北道 出身의 移住民과 그 子女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方言인 東北方言으로 편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露韓小辭典」은 이용 대상자의 폭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모든 한국인이 고루 便覽할 수 있는 露韓辭典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해 둘 것은 풀이말의 한국어를 끼릴 문자로 전사한 방식은 'tranliteration'이 아니라 'transcription'이라는 점이다. 흔히 自國語를 외국 문자로 전사할 때에는 표준어와(혹은 그와 동등한 지위의 방언) 그 시대의 表記法을 고려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 문자로 전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이 사전의 한국어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이 무렵 한국어의 전통적인 표기법이나 中部方言의 영향을 전혀 입지 않는, 東北方言 話者의 실제 발화음을 그대로 정밀전사한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언어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 당시 카잔에서의 언어학의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2] 아뭏든 이

2) Saussure 이전부터 활발하게 언어연구 활동을 벌여왔던 言語學派 중에는 Kazan 학파가 있다. 심리적 실재로서의 音韻 개념을 세웠던 Baudouin de Courtenay와 같은 사람도 바로 이 학파에 속한다. 이렇게 카잔에서의 언

도 일반 사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이다.

1.2.3 사전의 체재

사전은 target language의 어휘항목이 제시되는 표제항과 그에 대한 주석이 이루어지는 풀이항으로 나뉘어진다. 풀이항에는 표제어의 발음, 의미, 용법, 문법 정보 등이 제시된다.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에는 표제어의 多義性에 따라 主意味(primary meaning)에 이어 副意味(subsidiary meaning)가 순차적으로 배열되고 그 用例가 제시된다. 그리고 주석의 범위가 확대되면 관용구나 속담, 혹은 類意語나 反意語 또는 俗語 등과 같은 표제어의 意味와 관련되는 제반 정보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표제어와의 意味關係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기호나 略語를 사용한다.

사전이 갖추어야할 이러한 기본적인 사전 형식을 염두에 두고 이 사전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2.3.1 語彙項目과 文法情報의 表示

표제항의 러시아어 어휘항목은 러시아어 字母順에 따라 배열되어 있고 매 항목마다에는 악센트가 표시되어 있다. 등재된 어휘항목 수는 총 1770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휘항목 수가 적고 또 그중에는 러시아의 人名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사전이 러시아어 초급 교과서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음기호는 여타의 러시아 사전에서처럼 제시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어의 발음은 모음의 경우 악센트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악센트가 놓일 때에는 제음가를 가지지만 악센트가 놓이지 않을 때에는 악센트 표지가 있는 음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음이 앞뒤의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자음은 어말 위치나 무성자음 앞에서 유성자음이 무성음화 되거나 반대로 무성자음이 유성자음 앞에서 유성음화되는 등, 규칙성을 띠고 있으므로 綴字만 보고도 그 발음을 예측할 수 있

어학은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전이 간행될 무렵에도 이곳에서는 불가갓 주변의 북방 터어키어, 몽고어, 핀어 이외에도 주변의 소수 이민족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 발음기호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표제어의 품사와 性·數·格 등은 일일이 밝혀 놓지 않았지만 풀이항의 한국어를 통하여 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품사 표시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경우에만 되어 있다. 그리고 명사는 풀이항의 한국어에 主格語尾 '-이'를, 동사는 定動詞 語尾 '-다' 대신에 名詞化素의 '-기'를, 형용사는 '-게'('것+이'의 준말)를 어간에 각각 붙여서 구분해 놓았다.

그리고 명사의 性은 밝혀 놓지 않았지만, 數 표시의 경우 복수명사는 한국어 명사어간에 '-tər'을 접미시켜 나타내었다.

한편, 러시아어 動詞의 完了體는 'k'ɨsɨgú tɛŋgígi'(끌고 다니다), 'soríɨ ta s'ɨgi'(노래를 다 부르다)와 같은 표현방법으로 완료체의 相(aspect)的 특성을 나타내었다.

1.2.3.2 기본격과 주격

표제어가 명사일 때 표제어의 의미를 지닌 풀이항의 한국어 명사는 예 (1)과 같이 主格(Именительный Падеж)형과 기본격(Основной Падеж)형으로 나누어 제시해 놓았다.[3)]

(1) ㄱ tʃídak, tʃídɛgi | kwɛ-hik, kwɛ-hɨrgi(진흙)
ㄴ tyaŋ, tyẽ(장(場))
ㄷ nyáŋban, i(양반), sárɨm, i(사람)

사전 편찬자들은 (1)의 'tʃídak, kwɛ-hɨk, nyáŋban, tyaŋ, sárɨm'을 '기본격'이라 하고 그와 컴마로 분리되어 있는 오른쪽의 'i'(혹은 컴마 없이 직접 어간에 결합되어 있는 語末의 'i')를 主格語尾라 하였다. 그리고 'i'가 연결되어 있는 'tʃídɛgi, kwɛ-hɨrgi, tyẽ, nyáŋban, i'를 '主格'이라 하였다. (1)ㄱ-ㄴ의 경우 그들이 주격어미라 한 'i'를 컴마로 어간과 분리시키지 않은 것은 'i'가 어간에 統合될 때, 音聲規則(가령

3) '基本格'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생소하기도 하려니와 국어에서는 부적절한 술어이다. 그리고 이 사전 편찬자들이 주격어미라 한 'i'도 그것이 실제 '주격어미'인지 아니면 '接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後述 참조). 여기서는 일단 사전 편찬자들이 사용한 用語이기에 그대로 쓰기로 한다.

有聲音化 규칙과 같은)이나 音韻規則에 의하여 어간의 모습이 '기본격'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 辭典의 편찬자들은 序文에서 말하고 있다.

(1)ㄱ에서 'tʃídɛgi'는 'i'가 어간에 統合되면서 'i'를 同化主로 하는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kwɛ-hɨrgí' 역시 기본격 'kwɛ-hɨk'과 어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i'를 분리시키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기본격형은 語幹末 子音群單純化 규칙에 의하여 休止 앞에서 'r'이 탈락하여 나타나지 않는 반면, 주격어미라 한 'i'가 연결되었을 때에는 'r'이 나타나 '기본격'과 '주격'형의 모습이 달라져서 'i'를 분리시키지 않은 것이다. (1)ㄴ은 語幹에 'i'가 統合되었을 때 움라우트, 鼻母音化, 語末'i'脫落과 같은 일련의 규칙들의 적용에 의하여 '주격'형이 '기본격'형으로부터 크게 달라진 예인데 이 경우에는 아예 '주격'형에서 'i'를 분리해 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전 편찬자들은 한국어 명사의 기본격과 주격을 일일이 밝히고 그 두 격형태를 사전에 함께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기본격형과 주격형의 異同에 따라 그 표기를 (1)과 같이 달리 한 것이다. 이는 「露韓小辭典」의 편찬자들이 한국어 단어의 형태 분석은 물론 형태소 경계에서의 音韻現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1)과 같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음운규칙에 의한 형태변화와는 달리 기본격과 주격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非自動的 交替를 보여주는 이른바 '特殊語幹交替名詞'(李基文 1962)들이 그 예인데, 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격과 주격형을 구분해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 편찬자들은 곡용형태들로부터 기본격을 이끌어내는 機制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은 문제의 名詞 複數形을 기초로 해서 基本格을 설정하는 方法이다. 즉 複數形에서 接尾辭'-t(d)ər'을 제거해 버린 나머지 부분, 바꾸어 말하면 複數接尾辭 바로 앞에 위치하는 어간 형태를 사전 편찬자들은 '基本格'이라 하였다. 생각컨데 「露韓小辭典」의 편찬자들은 系合的 體系 內에서 어떤 명사 어간이 曲用語尾나 接尾辭(필요에 따라서는 복합어를 이룰 수 있는 명사까지도 포함하여)와 맺는 統合關係를 살피고, 거기에서 音韻論的 혹은 形態論的 요인에 의한 명사 어간의 형태 변화를 관찰한 다음,

複數接尾辭 '-t(d)ər'은 어간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機制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사전 편찬자들은 한국어(東北方言)에서 보여지는 특수한 어간 교체 명사들의 기본격형과 주격형을 설정하였다. 아래 (3)은 사전 본문에서 가려 뽑은 그러한 예들이다.

복수형			기본격	주격	기타
namu	dər	→	namú(木)	nɛŋgí	naŋgɨllɨ(조격)
čarɨ	dər	→	čarɨ(袋)	čargí	čargɨ(대격)
asɨ	dər	→	asɨ(弟)	ɛk'í	akkɨnɨn(특수조사, -는)

이처럼 한국어 명사를 기본격과 주격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한글 자모를 이용하지 않고 끼릴문자 계통의 전사문자로 한국어를 정밀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文法意識의 소산으로 보이며, 실제 발화음을 바탕으로 명사의 어간과 어미를 분간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한편 이 사전의 편찬자들은 체언어간 다음에 부가되어 있는 '-이'를 주격어미라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주격어미라 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래 (2)의 예들을 검토하면서 이 '-이'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ㄱ. k'ɛɛm, i (개암)
sər, í (서리)
sɛɛk, i (새아기)
ㄴ. wəndí (완두)
hwandí (環刀)
šilgwɛ (實果)
ㄷ. sárɨm, i (사람)
sɨmur, i (스물)
mun, í (門)
ㄹ. madʒǘᵘi (마중)
nyəmtʰʷí (염통)

(2)ㄱ은 'k'ɛɛm, sər, sɛɛk'이 과연 기본격인지 의심이 가는 예들이다. (2)ㄱ의 기본격형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곡용어미들이 연결되었을 때 'i'가 탈락하는지는 예가 없어 단언할 수 없지만 이것은 편찬자들이 恣意的으로 'i'를 어간으로부터 분리해 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ㄴ)은 'wəndu,

hwando, šilgwa'에 각각 '-이'가 접미되어 'wənduy, hwandu(<o)y, šilgway'가 된 다음 2(ㄴ)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가 완전히 어간에 흡수된 경우이다. 비단 2(ㄴ) 뿐만 아니라 본디 모음으로 끝난 명사 어간은 모두 2(ㄴ)과 같이 '-이'가 접미된 다음 그것이 語幹의 一部로 固定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ㄴ)과 같은 예들은 주격과 기본격형이 同一하다. 자음으로 끝난 경우이지만 (2)ㄹ도 이와 同一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음으로 끝난 명사 어간은 (2)ㄷ처럼 기본격과 주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즉 문제의 '-이'를 '주격어미'라 하고 그것을 컴마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푸찔로의 「로한주뎐」과 「露韓會話」의 부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한국어 명사는 '저내기(夕), yãi(羊), targí(雞), tʃédʒi(乳)' 처럼 '-이'가 접미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東北方言이 문장 단위로 전사되어 있는 「露韓會話」에서 이들 명사들의 곡용 형태를 살펴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문제의 이 '-이'가 탈락된다. 따라서 요즈음식으로 말한다면 기저어간은 '-이'를 제외한 앞 어간이 되는 셈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東北方言의 일부에서는 명사 어간에 '-이'가 접미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명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가 어간으로 固着이 되고 자음으로 끝나면 이때의 '-이'는 곡용어미 앞에서 자유로이 어간과 유리되는 특이한 성격을 지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 '-이'를 '주격어미'라 한 데에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전 안의 한국어 東北方言에는 '主格語尾'가 오직 '-이'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이 방언의 체언 어간에 '이'가 접미되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격어미 '-이'가 통합된 것과 결과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ㄱ의 예들에서 語幹末의 '-이'를 '주격어미'라 한 것은 誤分析의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사전 편찬자들이 '기본격'이라 한 것은 '語根 혹은 語幹' 내지는 '單獨形'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것을 '格'범주의 하나로 간주한 것은 한국어 체언의 곡용을 러시아어의 격체계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1.2.3.3 사전에 들어있는 기호들

사전 서문에는 이 사전의 풀이항에서 사용한 각종 기호들을 소개하고 이 기호들이 지시하는 의미를 밝혔다. 이 기호들이 사전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實例를 통해서 보기로 한다.

=: 이 기호는 어휘형태소가 결합하여 複合語를 이룰 때, 형태소 경계에서 音韻脫落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예) mus=ïre (p.36, 왜, 어째서)

muryák, muryégi(p.3, 물가(水邊)), чит. mur'=ák, mur'=égi

'mus=ïre'는 'musɨŋ'(무슨)과 'ïr'(일(事))의 복합어인데, '='는 이 단어가 복합어이고 또 'musɨŋ'과 'ir'의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ŋ'이 탈락되었음을 보인 것이다. 'mur'=égi'의 =는 'mur'과 'yək'이 복합어를 이룰 때 후행 형태소의 頭音 'y'가 탈락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사전 편찬자들은 'y'가 先行子音 'r'을 軟音化 시키고 그 자신은 탈락한 것으로 인식함)

그런데 曲用이나 活用에서 語幹에 語尾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운탈락에는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즉, 파생어나 복합어와 같은 造語法上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어들에서만 사용하고, 共時的인 굴절체계 즉 어간과 굴절접사와의 통합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서문의 기호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전 본문에는 '-'와 같은 기호도 보인다. 이 기호는 풀이항의 한국어 단어가 複合語이거나 派生語일 때, 語根과 語根 또는 語根과 派生接辭 사이에 질러 넣은 하이픈이다. 이 기호는 특히 漢字語에 例外없이 사용되었다. 이는 사전 편찬자들이 한국어 단어의 구조를 分析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예) nyə-in(女人), u-yué(牛乳에), tʰyen-tʃué(天主에), pú-tʃʰin(父親), hwan-dí(環刀), yók-šim(慾心), tsʰám-ba(질긴 끈), sú-yaŋ(숫양), tur-ts'ɛk'e(둘째께), nip-sar(입쌀), ám-tʰak(암탉), kodí-tik'i(곧이 듣다). nyak-p'aringé(약빠르다).

그러나 간혹 잘못 사용된 곳도 눈에 띈다. šʷe-gyəŋ(소경), ku-šir(구실, 직무)등이 그러한 예이다.

| : 이 기호는 러시아 단어에 대응되는 풀이항의 한국어 단어가 둘 이상이고 이들이 서로 類義語 관계에 인음을 指示한다.

(예) tʃəmak, tʃəmagí | turumák, turumági (두루마기)
kasɛ-ɛ́bi | tyaŋ-bu (丈人)

위 예에서 기호 '|'는 그것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두 단어가 類義語임을 보인 것이다.

‖ : 표제어인 러시아어 단어가 多義語인 경우, 표제어가 지니고 있는 둘 이상의 意味를 한국어로 나타낼 때, 그 한국어 단어를 서로 분리시키기 위한 기호이다.

(예) Навязать ; mɛk'íri hagí (매끼를 틀다) ‖ hímulli (힘으로)

한편, 풀이항의 한국어 단어가 同音異意語인 경우에는 표제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그 한국어 단어와 同音語인 단어를 괄호에 넣어 별도로 제시하고 아울러 그 意味까지를 밝혀 놓았다.

(예) Зажéчь, púri š'əgí (š'əgí-пипитb)

'š'əgí'는 '켜-'(點火)와 '(톱으로) 나무를 켜-'의 두 意味를 지니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1.2.3.4 注釋의 方式과 그 實例

이 사전은 표제어에 대한 풀이 방식이나 用例의 제시 등이 다른 對譯辭典의 그것과는 퍽 다르다. 표제어에 대한 注釋方式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I 〕 бàтюшка àбан, и | пỳ-х'óнг, пỳх'эŋ
пỳ-ч''ин, и

(번역 : 아버지 ában, i|pú-hyəŋ, púhyẽ|pú-tʃʰin, i)

이와 같은 유형은 對譯辭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석방식으로, 이 사전에서도 이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Ⅱ〕 бàбушка хàрми; чин хàрми—мать отцà, ӡä хàрми—мать мàтери

(번역 : 할머니 hármi; tʃin hármi—아버지의 어머니, wɛ hármi—어머니의 어머니.)

이 유형은 러시아 단어를 한국어로 풀이한 다음 그 한국어의 쓰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다시금 러시아어로 풀이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용례를 러시아어로 다시 주석을 단 것은 韓露辭典에서 볼 수 있는 方式이어서 특이하다. 이는 러시아어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Ⅲ〕 бàба ц'он анḳан, ѝ — деревѐнская жѐнщина

бàрхатникъ ỳдан ут'ы͡ры͡ нимны͡н сàры͡м, и — человѣ̀къ, одѣвàющійся въ бàрхатную одѐжду

(번역 : 村婦 tsʰon ank'an, í—시골의 아낙네 부귀한 사람 údan utʰiri nimnin sárim, i—빌로드 비단으로 옷을 해입는 사람.)

이 유형은 표제어의 의미를 한국어로 풀이하고 그 한국어를 다시 러시아어로 번역해 놓은 형식이다. 이 사전의 풀이항은 많은 부분이 이 유형의 주석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露露辭典의 표제어와 풀이항의 중간에 풀이항의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삽입해 넣은 듯한 인상마저 준다. 때문에 이 사전은 露韓辭典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露韓露辭典'이라 하는 편이 더 적합할 듯하다. 이 사전이 이처럼 매우 독특한 주석 방식으로 꾸며진 것은 이 사전 사용자들의 특수한 여건이 고려된 때문일 것이다. 이는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러시아어 학습자들, 말하자면 沿海州에 살고 있는 한국인 자녀들의 러시아어 학습 능

률을 높히기 위하여 이 사전이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한편, 표제어가 러시아어의 '전치사'나 '접속사'인 경우에는 표제어에 대당되는 한국어의 단어만을 제시하고 표제어의 품사, 文法的 機能과 意味 등은 아예 한국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한국어의 용례를 들었다. 용례는 문장 단위로 비교적 풍부하게 제시해 놓았는데 그 예문마다에는 '유형 Ⅲ'처럼 러시아어로 된 譯文이 딸려 있다. 아래 (Ⅳ)를 보기로 한다.

〔Ⅳ〕

а—*союзъ противительный, по корейски выражается частицей* нын (ынын, ыны, ын | ны), *которая ставится не передъ словомъ, къ которому относится, а послѣ него, подобно русскому* же, *напр.* ц'ôн-ынын — а деревня, кàц-ыны — а рѣка, сàрымдóр-ын — а люди, нарà-ны — а цàрство: Владимiръ чибуру торà огу, ак'ынын конгбу харà кàшó — В. воротился домой, *а* его млàдшiй братъ поѣхалъ

(번역 : а—對照의 뜻을 지닌 접속사. 한국어로는, 단어의 앞에 놓이지 않는 그러나 러시아어와 같이 뒤에는 아무 것도 놓이지 않는 nin(inin, ini, in|ni)과 같은 조사로 표현된다.
예를들면, tsʰón-inin—村-은, kã-ini—江-은, sárimdər-in—사람들-은, nará-ni—나라-는, Владимiръ tʃíburu torá ogú, ak'inin koŋbú hará kášə—블라디미르는 집으로 돌아오고, 아우는 공부하러 갔어.)

이러한 주석방식도 역시 꽤나 이색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한국인보다는 거꾸로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人을 위한 사전처럼 느껴지게 할 정도이다.

한편 러시아어 단어의 의미가 하나의 한국어 단어로 풀이되기 어려울 때에는 아래 〔Ⅴ〕와 같이 표제어에 상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한국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설명해 놓았다.

[V]

5 братецъ
братъ } *Опущено: слова:* х'ôнг,

х'ǝ̂ŋì—*стàршій* братъ, тонг-сäŋ | асы̂,äкì—*млàдшій* братъ. *мòгутъ имѣть укàзываемое имъ здѣсь значѐніе тòлько тогдà, когдà идётъ рѣчь объ отношѐніи родствà брàтьевъ междý собòю; когдà же придётся говорѝть о родствѣ междý собòю сестёръ, то бýдутъ употребля̀ться тѣ-же сàмыя словà, но онѝ бýдутъ ужѐ означàть:* х'ôнг, х'ôŋì—*стàршая* сестрà,тонг-сäŋ | асы̂,äкì—*млàдшая* сестрà. *Тòлько послѣднее изъ приводѝмыхъ корѣйскихъ словъ*—асы̂, äкì—*допускàетъ исключѐніе: оно мòжетъ означàть млàдшій братъ по отношѐнію къ сестрѣ, хотя̀ и н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ъ смы̀слъ млàдшая сестрà относѝтельно брàта. Для выражѐнія э̀того поня̀тія слýжитъ слòво* н'ô-тонг-сäŋ. *Слòво* ǝ̀рäби *означàетъ* братъ *по отношѐнію къ сестрѣ, а для указàнія обрàтной мы̀сли пòльзуются слòвомъ* ны̂бы̀, *означàющимъ* сестрà *по отношѐнію къ брàту.*

(번역 : hyəŋ, hyəí—형제중 나이 든 사람, toŋ-sɛ̃|asi, ɛk'í—형제중 나이 어린 사람'이는 형제들 상호간에 형제들의 친족관계에 대해서 말할 그 때에만 여기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자매들 상호간의 친족관계에 관해서 말할 때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그것은 즉 hyəŋ, hyəí—는 자매 중 나이든 사람, toŋ-sɛ̃|asi, ɛk'í—는 자매 중 나이 어린 사람을 뜻한다. 단, 여기에 인용된 한국어 단어 중 asi, ɛk'í는 예외를 허용한다. 즉 그것은 비록 남자 형제에 대해서 어린 자매의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자매에 대한 나이 어린 남자 형제를 의미할 수 있다. (필자 註 : 손위 남자가 손아래 여자 동생에게는 '아우'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반대로 손위 여자가 손아래 남동생에게는

'아우'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뜻)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어 nyə-toŋ-sɛ̃가 그 역할을 한다. 단어 órɛbi는 자매에 대한 관계에서 남자 형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반대의 뜻을 지닌 경우, 남자 형제와의 관계에서 여자 자매를 의미하는 nibǐ가 사용된다.)

주석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예이다. 위 예는 譯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어 'брат'와 'сестра'(英語의 'brother'와 'sister'에 각각 해당)의 뜻과 그 쓰임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어 친족명칭어 'hyəŋ(형), asɨ(아우), toŋsɛ̃(동생), órɛbi(오라비), nibǐ(누이)를 들고 이들의 의미와 用法을 설명한 것이다. 이도 역시 러시아 단어의 뜻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어 단어의 뜻을 러시아어로 풀이한 것인 듯한 느낌을 준다.

1.2.3.4.1 [Ⅰ～Ⅴ]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전에서는 한글 자모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 오직 끼릴 계통의 문자만으로 인쇄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辭典 본문의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活字體에 의하여 구분되도록 하였다. 즉 표제어는 러시아어의 인쇄체 소문자를, 표제어에 대한 러시아어 주석은 이탤릭체를 써서 구분하였다. 그리고 풀이항의 한국어는 끼릴 문자 계통의 전사문자로 전사하였고, 한국어 용례에 딸린 러시아어 譯文이나 注釋文은 러시아어 인쇄체 소문자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풀이항에 들어 있는 문장이 어느 나라의 언어이고 또 그 문장의 기능이 무엇인지 쉬 드러나도록 배려하였다.

1.2.4 전사문자와 악센트 표지

사전에서 한국어를 전사한 문자는 모두 끼릴 문자이거나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서 한국어 東北方言의 音聲들을 미세한 부면까지 정밀전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전사문자들의 목록은 序文에 들어 있는데, ҥ" 와 ɣ" 그리고 ʎ, ʉ를 制外하고는 각 전사문자가 어떠한 音聲特徵을 나타내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사전보다 앞서 간행된 「露韓會話」에서 이들 전사문자들의 음성특징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에 이 사전에서는 생략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한편 이들 전사문자들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어떠한 傳統을 가진 것인지 우리에게는 매우 궁금한 점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내막을 소상히 알 수 없음이 안타깝다.

다만 사전의 머리글에서, "이 「새 綴字敎科書」가 異國人들을 위한 학교에서 가장 많이 使用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용되었다."라고 한 점을 상기해 보면, 이 전사문자들은 톨스토이가 지었다고 하는 「새 綴字敎科書」 속에 들어 있는 끼릴 문자와 그 끼릴 문자의 다양한 변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생각컨데, 이 「새 綴字敎科書」에 들어 있는 끼릴 문자들은 비단 한국어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方言이나 러시아 領內의 소수 이민족의 언어를 전사할 수 있을 만큼 다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전 안의 한국어 전사문자는 사전 편찬자들이 그들의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 綴字敎科書」에서 한국어를 전사하기에 알맞은 것을 가려 뽑은 것이거나 변형시킨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에서 한국어를 전사한 전사문자 체계와 이들이 지시하는 한국어 東北方言의 음성은 拙稿(1986b, c)에서 언급한 「露韓會話」의 그것과 大同小異하다. 본고에서는 「露韓會話」에서 달라진 것만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東北方言의 音聲	「露韓會話」	「露韓小辭典」
연구개 마찰음 [γ]	ŕ	없앰
on-glide	러시아 자모를 이용함	二重母音 앞에 子音이 없을 때 : [й] 先行子音이 있을 때 : ['] [и]
off-glide	[и]	[и]
有氣性의 징표	[x̂]	[']
된소리[s']	[cc]	[ĉ]

전체적으로 보아 二重母音의 glide [y]를 전사하는 方式이 달라져서 一音聲은 一文字로 적는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露韓會話」에서는 한국어의 二重母音 [ya], [yə], [yo], [yu], [yɛ], [ye]는 러시아어 자모 'я, ё, ё, ю, я, е'로 전사하였는데 이 사전에서는 音節副音을 별도의 전사기호로 전사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어에서 'я, е, ю, ё'가 기본적으로는

[ya, ye, yu, yo] 등의 音을 가지지만 이들 문자는 단어내에서의 위치나 악센트 표지의 유무에 따라 발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로 보인다. 즉 「露韓會話」처럼 한국어의 二重母音을 단일문자로 전사하면 러시아어에서처럼 발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음성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말하자면 音節副音을 별도의 전사기호로 전사하는 것이 한국어의 음성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또한 올바른 발음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는 러시아어에서 先行子音이 '軟音'임을 지시하는 기호인데, 「軟音」이라 함은 혀의 중간 부분을 경구개를 향해 높이 들어올려서 조음하는 口蓋音을 말한다. 이에 의하여 한국어 [kyə]는 [k'ə]로 전사되었다. 따라서 上向性二重母音의 on-glide [y]는 核母音 앞에 놓이는 音節副音으로 인식되지 않고 先行子音 그 자체가 軟音化된 音, 즉 口蓋音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전사방식은 한국어를 러시아어 표기체계에 가깝게 전사함으로써 러시아어 학습의 효과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露韓會話」에서 軟口蓋摩擦音 [γ]를 전사한 문자 'ґ'는 이 사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γ]가 특정 환경에서만 出現하는 自由變異音이었기 때문에 削除한 듯하다. 또 「露韓會話」에서 된소리는 평음을 전사한 문자의 하단에 보조부호 [ˏ]를 가한 문자들로 전사하였는데 유독 마찰음 [s']는 'c̣'가 아닌 'cc'로 전사하였었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는 'c̣'로 전사하여 된소리의 전사체계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有氣音의 전사에 있어서는 有氣性의 徵表 [x]를 ['']로 바꾸어, 'кx'(=ㅋ), 'тx'(=ㅌ)등은 각각 к'', т'' 등으로 대체되었다.[4]

그런데 露韓會話에서는 硬口蓋有氣破擦音(즉, [tʃʰ])을 'чш'로 전사하였는데, 이 사전 편찬자들은 「露韓會話」의 'чш'에 해당하는 音聲을 'ч', ч'', ч'''와 같은 세 개의 전사문자로 전사하였다. 이는 미세한 音聲差까지 고려하여 그것을 전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전사문자가 東北方言의 어떠한 音聲特徵을 전사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

4) 「Корея」, 「로한주뎐」, 「露韓會話」에서는 모두 [X]로 전사하였다.

이들 전사문자에 대하여는 序文에 특별히 언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 전사문자들이 지시하는 동북방언의 음성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ㅈ"와 같은 모양의 문자는 사전 안에서 그 자신이 있어야할 자리에 넣지 않았다. 그것의 가치는 ㅉ가 ㅌㅈ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ㅌㅋ"의 음성적 결합을 표시한다.

이것과 일치되게 문자 ㅈ"의 구성성분에 속하는 문자 ㅋ도 문자 ㅉ와 같이 아래쪽에 기호를 가져야만 한다. 그 때에는 그의 경사진 형태를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문자에 보통의 ㅋ"의 도움으로, 발음과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허용하지만 아래 단어들에서 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ㅈ와 ㅈ"은 다음과 같은 등식관계가 성립한다.

ㅈ" : ㅉ=ㅌㅋ" : ㅌㅈ

ㅉ는 [ts']로서 이것을 'ㅌㅈ'라 한 것은 'ㅈ'가 [ts]이므로 'ㅌㅈ'는 t+ts, 곧 [ts']이기 때문이다. 즉 ㅉ는 [ts]의 된소리이다. 그러므로 ㅈ"와 ㅌㅋ"와의 관계에서 ㅈ"는 ㅋ"의 된소리라 할 수 있다. 즉, ㅌㅋ"=[tʃ']=[t+tʃ]이므로 ㅋ"=[tʃ]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 정작 [tʃ]는 'ㅋ'로 전사하고 있다. 따라서 ㅋ=ㅋ"라 해야 옳은데 ㅋ"는 [tʃʰ]를 전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런데다가 사전 편찬자들은 역시 [tʃʰ]일 것으로 생각되는 음성을 'ㅋ'로도 전사하였다(아래 예문 참조). 이로 보면 이 사전에 실려 있는 한국어 동북방언의 경구개유기파찰음은 有氣性의 강도에 따라 ㅋ', ㅋ"로, 무기음은 ㅋ로 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ㅈ"은 도대체 어떤 音聲을 전사한 것일까? 위 서문 내용에 따르면 ㅈ"=ㅌㅋ"라 하였으니 ㅈ"는 ㅋ"(=[tʃʰ])의 된소리라고 해야 할 것이나 [tʃʰ]의 된소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ㅈ"는 有氣性과 緊張性이 동시에 수반되는 音聲을 전사한 문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를 자질을 써서 나타내면,

ㄱ. ㅋ=[tʃ][−aspirated; −tence]

ㄴ. ㅋ'=[tʃʰ][+aspirated, −tence]
ㄷ. ㅋ"=[tʃʰ][+aspirated, −tence]
ㄹ. ㅋ"=[tʃʰ][+aspirated, +tence]

과 같다. 그리고 이 전사문자들에 의하여 전사된 한국어의 實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ㅋ', ㅋ", ㅋ"는 모두 [tʃʰ]로 재전사한다).

ㄱ. ㅋ=[tʃ]
tʃəksam(적삼 98)
tʃə́nɛgi(저녁, 124)
tʃú-en(주인, 129)
tʃəmak(두루마기, 77)
tʃudí(주둥이, 77)

ㄴ. ㅋ'
tʃʰáadze(잘쿼, 11)
tʃʰut-tór(주춧돌, 18)
kaŋtʃʰí(찌꺼기, 22)
tʃʰiŋgʷí(친구, 28)
tʃʰɛk'í(착고, 43)

ㄷ. ㅋ"
pú-tʃʰin, mó-tʃʰin(父親, 모친, 2, 57)
pítʃʰi(빛, 3)
tʃʰígi(물을 따르다, 33, 52)
samtʃʰígi(삼키다, 18)
tʃʰe(妻, 31)

ㄹ. ㅋ"
kotʃʰí(고추, ix)
hútʃʰi(후추, ix)
myə́tʃʰi(몇(幾), ix)
matʃʰígi(맞히기, ix)
notʃʰá(놓자, ix)

이 사전에서 이렇게 경구개유기파찰음을 정밀전사하게 된 까닭은 이 한국어 方言에 [tʃ]의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t, p, k, ts]와 같은 자음들은 된소리와 有氣音의 짝을 온전히 갖춘데 반해 [tʃ]는 오직 有氣音의 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5] 이와 같이 [tʃ]의 된소리가 없는 이유로 넓은 有氣音域을 가지고 실현되는 硬口蓋有氣破擦音은 그 음성이 산출될 때의 발화 환경에 따라서 그 음에 대한 청각인상이 다르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전 편찬자들은 그점을 전사에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ㅋ', ㅋ", ㅋ"의 세 전사문자가 마련된 것이다.

5) 「露韓會話」에서도 [tʃ']는 나타나지 않아 音韻論的으로 우연한 空白(accidental gap)을 이룬다. 15C 국어에서도 'ㅉ'다음에 /i, y/가 연결된 예가 찾아지지 않는다.

위 예에서 ч', ч", ч"는 모두 [tʃ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성을 전사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이 세 전사문자들이 지시하는 음성들 사이에 調音上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발견해 내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tʃʰ/의 수의적 변이음을 전사한 것이다. 다만 ч"만은 그 분포 환경에 있어서 語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有氣音化에 의한 [tʃʰ]이 ч"항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것과 다를 뿐이다.

한편 序文에는 文字 ϰ, u 가 이 사전에서 오직 두 번만 나타난다 하고 그 예를 소개하였다.[6]

(예) ㄱ. εgyüʸ (아교(膠), 44) ㄴ. šüʸ(수(형식명사), 124)

1.2.5 사전 편찬에 관여한 인물들

이 사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正敎宣敎協會에서 출판한 책이다. 따라서 이 사전편찬은 이 협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7] 이 협회 산하에는 '飜譯委員會'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고 이

6) 이 문자가 지시하는 한국어 음성특징에 대해서는 拙稿(1986c)를 참조.

7) 19세기 서유럽의 학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종교기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통제되고 또 절대적으로 지배되었다. 러시아에서의 교육제도도 이와 同一하다. 러시아의 교육제도와 종교에 대해서는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10의 "Russian Church"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추려 요약해 보면,

"…1874년 이후 교육 및 교회 업무는 9개의 시베리아 선교회를 주관하는 러시아正敎宣敎協會로 이관되었다. 한편, 1854년 카잔대학에는 선교사들을 특별히 양성할 목적으로 分科가 설치되었다. 1884년에는 교회학교가 초급학교와 이 초급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師範學校로 분리되었다. 이들 학교는 모두 宗敎會議(Holy Synod)에 예속되었다."

이들 내용에 의하여 우리는 러시아正敎宣敎協會가 學校와 敎會 그리고 宣敎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였고, 또 카잔이 동방연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카잔대학에 특별히 선교를 위한 分科를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범학교는 러시아어 교육과 선교 업무를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던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우리는 이 사전이 왜 러시아正敎宣敎協會에서 출판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 협회와 카잔대학, 카잔사범학교, 번역위원회가 상호 有關機關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들을 선교협회가 통할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六人의 한국인이 카잔까지 오게 된 배경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단체가 사전의 편찬과 출판의 실무적인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의 장은 카잔대학의 마샤노프 교수이다. 그리고 사전 편찬에는 카잔사범학교의[8] 재학생인 六人의 한국인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沿海州의 얀치헤 출신인 '안드레야 콘스탄티노비치, 韓'은 이 사전의 한국어 제보자이다.

이들 외에 역시 카잔사범학교 1901년 졸업생인 한국인 梁氏가 이 일을 도왔다. 序文에는 그가 이 사전의 65페이지부터와 序文의 편집에 관여하였다고 되어 있다.

2.0 辭典 속의 한국어 方言

사전 풀이항의 한국어는 일별하여 한국의 東北方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東北方言이라도 지역에 따라 方言差가 현저하므로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가 東北方言의 어느 地域語인지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東北方言에 대한 기왕의 업적들을 바탕으로, 본 사전의 한국어가 함경북도의 어느 지역어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로 한다.

2.1 이 사전의 머리말에는 사전의 한국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한국어 단어의 기입은 남우수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한 사람의 발음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그 지역의 요구에 봉사하기 위한 이 소책자의 사명과 일치한다.

사전 편찬자들이 특별히 남우수리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방언을 채록

---

8) 카잔사범학교에 대해서는 고 송무 교수가 필자에게 보내준 글이 있어 그대로 소개한다.

"'카잔교원세미나'는 1872년 N.I. Ilminski(1822~1891)가 세웠으며, 볼가강 부근의 소수 민족을 러시아 공민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 즉, 그들 자신의 언어를 가르치고 연구해야 제대로 된 러시아 공민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핀족의 친족 소수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언어 연구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 세미나는 일종의 사범학교이었다고 보며 옛 형태로의 활동은 혁명 뒤 1918년에 끝났다."

한 것은 이 사전을 이용할 한국인들이 남우수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한편 사전 序文(xvi)에는 이 사전 편찬에 참여한 六人의 한국인의 이름과 출신지를 소개하고서,

> 이 소책자에서 한국어 음성의 기입의 토대는 위에 記名된 인물들 중에서 맨 마지막 사람(필자註 : A.K. Хан)의 발음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辭典의 한국어는 바로 이 A.K. Хан(韓氏)의 한국어 方言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전의 한국어가 沿海州, 더 정확히 말하면 남부 우수리의 포시에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방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韓氏의 方言이 정확히 함경북도의 어느 지역어인지를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韓氏의 당시 居住地는 沿海州이지만 이 사람의 移民 以前의 先代居住地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이주민 1세인지 혹은 2세인지 조차도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이주민 1세라면 東北方言의 한 核方言圈 방언 화자로 단정할 수 있지만, 2세라면 그의 方言은 선대의 순수한 方言이라기 보다는 이주민 집단의 다른 方言의 干涉을 받은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9]

그러나 현재로서는 韓氏의 내력을 소상히 밝힐 수 없는 처지이므로, 이 사전에 들어있는 韓氏의 한국어 方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韓氏가 함경북도의 어느 方言 話者였는가를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전의 한국어가 보여주는 방언 특징과

---

9) 초기 한국인의 러시아 移民에 대하여는 다음 論文 參照.
露檀學會, 「韓國史」(最近世篇), (1961, 乙酉文化社), p. 768.
고승제, 「한국 이민사 연구」, (1973, 장문각), p. 63.
玄圭煥, 「韓國流移民史」, (1976, 홍사단 출판부).
한편 Kim Syn Chva, 「Ocerki po istorii Sovetskich Korejcev」, (Almaata : 1965), p. 242에 의하면 이 사전이 편찬될 무렵인 1902년,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국적 취득자 16,140명, 미취득자 16,270을 합쳐 32,410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들은 거개가 함북 북부 사람들이었고 또 같은 부락 출신이 같은 곳에 정착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기 방언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함북 각 지역의 방언 특징과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드는 東北方言 자료 및 硏究論文은 田島泰秀(1918) 및 小倉進平(1927)이 있다. 前者는 咸鏡北道 鏡城 方言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언급한 글이고, 후자는 音韻史와 語法을 중심으로 하여 함경북도 방언의 방언구획에 관심을 두고 쓰여진 보고서 성격의 글이다.

田島泰秀(1918)에는 많은 鏡城方言 자료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전의 東北方言에 비해 퍽 改新的이다. (가령 움라우트나 구개음화와 같은 음운현상에서) 그러므로 이 사전의 東北方言은 鏡城의 以北지역, 즉, 함북의 六鎭方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小倉(1927)은 간략하기는 하지만 함경남북도 방언의 音韻史的 특징이 항목별로 잘 소개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 方言形과 그 方言形의 分布地域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작업에는 안성맞춤이다. 小倉(1927)과 이 사전의 東北方言을 비교해 보면서 이 사전의 한국어가 과연 함북의 어느 지역 방언과 일치하는가를 밝혀보기로 한다.

2.1 音韻(史)에 관한 문제

2.1.1 'ᄋᆞ'의 반사형

15세기 중앙어에서 'ᄋᆞ'音은 語頭 위치에서 先行子音이 邊子音인 경우 'ᄋᆞ>오', 'ᄋᆞ>아'의 두 갈래로 변화하였다(비어두 음절에서는 例外없이 'ᄋᆞ>으'로 변화함)

(예) porp-(<ᄇᆞᆷ-, 踏, 122), komts^{hw}ïúgi(<ᄀᆞᆷ초-, 藏, 111)
mar (<ᄆᆞᆯ, 馬, 24), p'ar-ts'^{w}ï(<ᄇᆞᆷ쥐, 89)
〈小倉〉: 鍾城, 慶源

2.1.2 /i, y/ 앞에서 /ㄷ, ㅈ/이 /ㄱ/으로 나타나는 예.

(예) kína kagí, kínan taré(<디나-, 58, 65, 92)
kit, kídʒi (<깆(羽), 78)
kyəŋšimú mək'í(<뎜심(點心)을 먹기, 71)

kyər, i, kyər-t'aŋ(<덜, 덜당(寺), 130)
〈小倉〉 會寧, 鍾城, 慶源,

2.1.3 k- 구개음화.

k-구개음화를 경험한 어사는 단 하나의 어사도 없음.

(예) kidurgúgi(기다리다, 82,31)
kipʰún(깊은, 18)
kiɨmt'ək(기름 떡, 3)
kiduŋ(기둥, 113)
kíɨ ok'ígi(길을 잘못가다. 101)
kyédʒip(계집, 72)
〈小倉〉 회령, 종성, 경원, 무산

2.1.4 t 구개음화

t 구개음화를 경험한 어사는 없음.

(예) tikʰígi(지키-(守),112)
típʰullɨhan(짚(藁)-으로 한, 109),
tyáŋgarɨkagí(장가가-기, 31)
tyošən(조선(朝鮮), 47)
tyuŋgan(중간(中間), 103)
tyəŋgéɨ(저기-로, 123)
tʰyəran(鐵丸(총알), 93)
tʰyen-dʒugé(天主(하느님)-께, 4)
tipʰé(지팡이, 122)
tírɛ̃(회충, 132)
tyáŋsï(장수(商人), 47)
tyotʰí(좋-지(好), 65)
tyušok(주석(錫), 99)
tyəŋgɛ̃(정강이, 46)
tʰyən-dí(天地, 102)
t'ik'í(찧-(搗), 44)
〈小倉〉: 회령, 종성, 경원.

2.1.5 h-구개음화 : 改新形과 保守形이 共存

(예) še, šet'ɛ(혀(舌), 138)
š'əgí(켜-(點火), 33)
him(힘(力), 60), hyuŋ-nyən(흉년, 19) hyəína(兄이나, 5)
〈小倉〉: 회령, 종성, 경흥, 청진, 성진.

2.1.6 語中子音 -b-

(예) mušəbun(무서운, 113), habundzá (혼자, 100)

obún(온(全), 85)
〈小倉〉 함북 전지역.

2.1.7 'ㄷ, ㅌ' 뒤에 /y/가 연결될 수 있다. 어두, 어중 어느 위치에서나 'ㄷ, ㅌ' 뒤에 二重母音 /ya, yə, yo, yu, ye, yɛ/가 연결 될 수 있다.[10]

(예) tyćer(제일, 60) tyarigi(짧-, 47)
tyē(場, 2) tyótʰa(좋-, 67)
〈小倉〉 회령, 종성,

2.1.8 '샤, 셔, 쇼, 슈'도 어두, 어중 어느 위치에서나 나타난다.

(예) yéšu(예수, 42) šúbak(수박, 1)
š'üšígi(쑤시-, 46) šuemí(수염, 126)
šugən(수건, 85) šuyyáŋ-bədir(수양버들, 39)
šəbā kagí(장가가다, 31) šən-šē(先生, 127)
〈小倉〉 회령, 종성, 경원.

2.1.9 '외'는 [wɛ]로 실현됨.

(예) wɛúgi(외우-(暗誦), 133) wɛhármi(외할머니, 2)
ts'wɛúgi(쫴우-, 덥히-, 21) hwɛ parimú púrgi(회파람을 불-, 34)
swɛ módi(쇠못(釘)-을, 89) swɛ púdi(쇠붓-이(鐵筆), 78)
twɛgí(되-(爲), 96, 112) twɛgí(<되야기(瓶珍), 48)
twɛú(되게, 매우 세게, 21)
〈小倉〉 회령, 종성, 경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露韓小辭典」의 東北方言은 함경북도 북부지역 이른바 六鎭地域이라고 부르는 '온성, 종성, 회령, 경원, 경흥'중에서 회령과 경원을 연결하는 등어선의 以北地域 方言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

10) 小倉(1927)에 의하면 '댜, 뎌, 됴…'가 함북 종성에서는 '댜, 더, 됴…'로, 회령에서는 '댜, 뎌, 됴…'혹은 '다, 더, 도…'로, 경원에서는. '댜, 뎌, 됴…'또는 '더>데'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 사전의 동북방언에서도 'yə>ye'의 예가 하나 있다. tʰyən-dʒu>tʰyen-dʒu(天主). 이로 보면 이 사전의 한국어는 '鍾城'方言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2 形態, 語彙

「露韓小辭典」에는 주격조사 /-가/는 보이지 않는다. 뿐더러 共同格조사도 /-과/만이 보일 뿐이다. 그리고 특수조사 {-는}은 / -ɨnɨn~-ɨnɨ~-ɨn~-nɨ/로, 대격조사는 /-ɨ~-u~-rɨ/로 나타난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무, 아우, 자루' 등은 曲用에 있어서 15세기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간 교체를 보여 준다. 이도 역시 동북방언의 특징임은 말할 나위 없다.

한편 이 사전의 한국어에는 古語가 많이 남아 있다. 가령 šaŋgɛbi s'ada(賞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nə́ərda(<너흘-), tʰar-(실을 감다). obún(온(全))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kúri'(그네), tʃəmak(두루마기), p'árts'ʷï(박쥐), nɨbḯ(누이) 등은 잘 알려진 함북방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전의 한국어가 함북북부 방언임을 알 수 있다.

2.3 악센트와 音長

주지하는 바와 같이 東地方言은 악센트와 音長을 가지고 있다. 이 사전의 한국어에도 이들 운율적 요소들이 모두 전사되어 있다. 악센트는 악센트 표지로서, 音長은 母音을 중복 표기함으로써 나타내었다.

序文에는 한국어 악센트와 악센트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설명 해 놓은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한국어에는 악센트가 있고, 이 악센트는 단어내에서 移動할 수 있는데, 이 사전에서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기본격에 주격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악센트가 주격어미 쪽으로 이동하는 예가 있는데 그 때에는 주격어미에 악센트를 표시하였다. 세째, 단어내에 악센트 표지가 두번 놓이는 예가 있다. (필자註 : '예'로 든 것은 모두 복합어임, sasí-namú, sasí-nɛŋgí) 네째, 전사문자 상단에 보조부호가 부가됨으로 해서 악센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한 단어내에서 악센트가 놓이는 음절을 찾아내는 方法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사전 편찬자들은 한국어의 악센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료는 함북 방언의 악센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는 생략한다.

3.0 람스테트의 한국어 연구와 「露韓小辭典」

람스테트의 연구 논저 속에는 北韓方言 어휘가 상당수 들어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어사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는 북한 방언이 한국어에서 가장 보수적이며(람스테트, 1939 : 18), 한국어의 변화 이전 단계를 재구할 수 있는 준거(람스테트, 1939 : 8)가 되거나 혹은 재구에 요긴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람스테트, 1928 : 9)고 믿어 북한 방언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그는 이 북한 방언을 서울말이나 小倉進平에 의해 조사된 南韓方言과 比較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현저한 方言差를 中心으로 한국어사를 기술하려 하였다.

이는 한 言語가 공시적으로 보여주는 방언현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선 시기의 言語의 모습을 再構하고 나아가 그 言語의 歷史를 기술하던 歷史比較文法의 方法論에 의거한 연구태도이다.

그러면 그의 논저 속에 들어 있는 북한 방언 어휘는 어떻게 수집된 것일까? 拙稿(1986a)에서 이미 그 대강을 밝혔듯이 이들 자료는 본 「露韓小辭典」에서 전재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푸찔로나 로스의 저서에서 전재한 것도 있다. 拙稿(1986a)에서는 필자가 「露韓小辭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露韓會話」가 보여주는 전사문자 체계와 한국어의 방언 특징에 의거 *Studies in Korean Etymology* 등에 실려 있는 N.K·는 대부분 이 사전에서 전재한 것이라 단정하였었다.

본장에서는 람스테트의 논저 속에 있는 이들 북한 방언 자료와 이 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동북방언을 직접 비교하여 보고, 그의 N.K. 자료들 중의 어떤 것이 이 사전에서 전재한 것이며 전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들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밝혀 보도록 하겠다.

3.1 그가 한국어에 대하여 발표한 최초의 본격적인 論文은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이다. 이 논문의 音韻史 부분에 북한 방언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을 「露韓小辭典」의 동북방언과 견주어 보고 그 出典과 전재과정에서의 오류들을 밝혀 보기로 한다.

위 자료들은 모음체계와 자음체계의 재구 및 그 역사적 변화를 설명

* 「露韓小辭典」은 끼릴문자로 전사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국제음성기호로 재전사한 것임.

람스테트(1928)	「露韓小辭典」	비 고
kagu (3)	kagu (73)	* u>o 가설
pašēn (4)	pašən (133)	'ē'는 'ë'의 잘못.
namge>naŋge (6)	naŋgé (26)	특수어간 교체명사의 史的 발달 설명부분.
mukki, musu (6)	musú, mukkí (99)	
asï, ákki (7)	asi, εk'í (5, 103)	
kuŋgi (7)	kuŋgí (68)	
uër (月) (7)		*出典 未詳
tᶜjër (鐵) (7)	tʰyər (93)	
mar (馬) (8)	mar (12)	
mur (水) (8)	mur (65)	
pur (火) (8)	pur (71)	
tjōōn (好) (9)	tyóon (129)	악센트 표지를 잘못 전재함.
čëgïn (9)	tʃágin (21, 40)	
tsar (9)	tsar (37, 38)	
kadi	kadí (65)	

하는데 이용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들은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증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한 예를 制外하고는 모두 「露韓小辭典」에서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무렵에 북한 방언을 조사 보고한 자료집이나 연구논문은 앞서의 田島泰秀(1918)나 小倉進平(1927)가 고작이고 또 여기에는 위 자료들이 없기도 하거니와, 流音을 'r'로 전사한 점, 'ㅈ'을 'č'(=tʃ)와 'ts'로 구별하여 재전사한 점, 부분적으로 악센트 표지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전에서 전재한 것이 틀림없다. 'uër'은 출전미상이지만 유음을 'r'로 전사한 것으로 보아 푸찔로의 「로한ㅈ뎐」에서 전재한 것으로 보인다. 「로한ㅈ뎐」에도 한국어 流音은 거의 'r'로 전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여 람스테트는 한국어의 유음이 기원적으로 *r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위 비고란에 명시한 바와 같이 람스테트는 전재 과정에서 몇몇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악센트 표지가 잘못 되어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露韓小辭典」의 편찬자들이 한국어의 악센트에 보인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스테트가 한국어의 악센트 문제를 소홀히 여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2 Studies in Korean Etymology

알타이 제어와의 어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의 어원을 밝혀 보려는 목적으로 저술된 이 책에는 약 340여의 북한 방언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북한 방언 자료 중의 극히 일부에는 해 방언형의 出典이 명시되어 있다.

가령 NK(RK)라 한 것은 바로 이 「露韓小辭典」에서 전재한 것이고 NK(pucillo)라 한 것은 푸찔로의 「로한조뎐」에서, NK(Ross)는 로스 목사의 저서에서 전재한 것이다. 小倉의 논저에서 전재한 것은 논문 제목을 밝힌 것도 있고 또 NK(dial)이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NK라 표시된 북한 방언은 그 出典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들 자료의 출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가 이들 NK방언과 「露韓小辭典」의 東北方言을 비교해 본 결과, NK방언은 거의 모두가 「露韓小辭典」에서 전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예는 푸찔로와 로스의 저서에서 인용한 것임도 드러났다.

이는 람스테트의 논저 속에 들어 있는 북한 방언이 람스테트 자신에 의하여 직접 조사 蒐集된 것이 아니고 문헌자료를 통하여 수집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가 이 사전의 한국어를 어떻게 재전사하였고 활용하였는가 하는 점만을 간단히 살펴 보겠다. 논의를 위해 우선 이 사전의 전사와 다르게 재전사된 것만을 추려서 소개한다.

S.K.E. 속에 들어 있는 북한 방언은 一見해서 그것이 「露韓小辭典」에서 전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ərgəŋ-tsʰɛ, aim-šwä와 같은 어사들의 형태소 사이에 하이픈이 있다든가, cäun-ge(107), nippad'āṇi(168) 처럼 (용언에 '-gɛ'를 붙인 것이나, [-d'-]에서 처럼 軟音부호를 볼 수 있는 점 등) 그의 음성 전사기호로 재전사하지 않고 「노한소사전」의 한국어 전사 방법이나 전사기호의 흔적을 남긴 예들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의 한국어는 람스테트에 의하여

〈S.K.E.〉	「露韓小辭典」	비 고
aǯek, aǯegi (3)	adʒák, adʒ́ʒ́gi (126)	e→ę
am-šwä (9)	ám-šwe (6)	ä→e
asu(:äkki, akki) (12)	asi, ɛkkí (103)	
tsämäǰakčir hada (21)	tsɛmɛɛktʃiri hagi (69)	ǰ→ɛ
caʒagi, caʒägi (25)	ts'adzɛgi (3)	c→c'
tjōtha(:tjōha, tjōa)	tyóon (129)	악센트
tjōwa, tjōun)	tyóa (9)	활용형
tsim (38)	ts'im (136)	ts→ts'
tswäda,fact. tswäūda(38)	ts'wɛúgi (21)	악센트, ts→ts'
čhīda (50)	tʃʰígi (33)	악센트
chīuda (50)	tsʰïúgi (124)	i→ï
čhibi, čhibii (50)	tʃʰibï (129)	i, ii→ï
jęŋērgi (53)	yəŋ árgi (34)	악센트 및 e→ę
hānar, hānir (59)	hanir (65)	'—'를 제거
jęŋe (66)	yəŋgé (123)	jęŋe→jęŋge
keǯippurärі hagi (111)	kədʒip'urɛri hagi (13)	e→ę
kīnada(:-nā, -nān)	kínan, kína (58)	악센트
kiida (114)	kïgi	ii→ï
kot(kot, kothi) (127)	mur kotʰi, pur kotʰi	
hi-, hiy- (61)	hïgi (80)	i, iy→ï
hweda(:hweję, hwen)		
kkisir- (69)	k'isigi (119)	kkisir→kkisi
šiŋńä(69)	šiŋnyɛ (12)	ń→nj
kaʒiŋ (101)	kadzí (56)	i→ï
węndi kothi (127)	wəndí kotʰi (114)	i→ï
puraŋgui (94)	puraŋgʷí (94)	ui→ï
manthui (141)	mántʰʷï (53)	ui→ï
negida (163)	nyegigi (116)	e→ye
nippad'āŋi (168)	nip'adyɛ́ (2)	ā→ä, 'ŋ'이 잘못 전사됨.
piręŋgurē (201)	pirəŋgiré (67)	악센트, u→i
pida(:pe, pij-ę)	pígi (31)	i→ï
twäū (277)	twɛú (21)	악센트
uthii (286)	utʰí (80)	ii→ï

상당수가 잘못 재전사 되었다. 사전에서 끼릴 문자 'ы'는 한국어 [ï]를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拙稿 1986c), 이 문자는 〈S.K.E.〉에 [i], [ɨy], [ii], [ɨ] 혹은 [ui]로 재전사되어 있음을 본다. 그리고 악센트 표지가 音長의 표지 'ˉ'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그가 이 사전의 한국어 악센트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북한 방언의 체언과 용언의 곡용형과 활용형, 그리고 派生語는 대부분 람스테트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이 사전의 한국어 체언은 이른바 기본격과 主格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主格形은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사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S.K.E.〉에 들어 있는 북한방언 어사에 대한 派生語(주로 使被動接辭에 의한)는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이는 람스테트가 이 사전에 실려 있는 派生語들을 통하여 派生規則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추정해 낸 것들로 보인다. 가령, 이 사전에는 tʰárgi(실을) 감다)만이 들어 있는데 〈S.K.E.〉에는 'tʰarguda' (277)가 실려 있다. 반대로 사전에는 'ts'wɛúgi' (21)만이 있는데 〈S.K.E.〉에는 'NK. tswäda(불을 쬐다), fact. tswäūda'라 되어 있어 람스테트 자신이 'tswäda'를 삽입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람스테트가 이 사전의 한국어 東北方言을 통하여 音韻(史)이나 形態 造語法 전반에 걸쳐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람스테트(1928, 1939)에는 한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한국어 방언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이 사전의 한국어 동북방언 자료를 통하여 한국어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그가 한국어의 'ㅈ'이 본디 치경음 'ts'이었다고 한 점이나 流音을 'r'로 재구한 점, 구개음화와 같은 규칙 등, 한국어 音韻史의 많은 부분이 이 사전의 한국어 자료들에 의하여 시사되고 또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던 것이다.

아뭏든 우리는 이 사전이 발견됨으로 해서 람스테트의 연구 논저들을 대할 때마다 궁금하게 여겼던 N.K. 방언 어휘의 出典과 이 方言의 分布 지역 및 방언 특징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

Ⅲ

「露韓小辭典」은 러시아의 沿海州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주민 자녀들의 러시아어 학습을 돕기 위하여 1904년 러시아의 카잔에서 편찬 간행되었다.

이 사전은 최초의 露韓辭典이라 할 수 있는 푸질로의 「로한ㅈ뎐」과는 체재면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한ㅈ뎐」이 辭典으로서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對譯語彙集이라고 한다면 이 사전은 여기서 진일보하여 사전다운 면모를 갖춘 대역사전이어서 모름지기 露韓辭典의 嚆矢라 할 만하다.

이 사전은 開港期에 刊行된 다른 대역사전과는 몇 가지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즉, 일반 대역사전은 외국어 학습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사전은 러시아人들이 자국의 영내에 거주하는 소수 이민족에게 자국어를 보급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리고 이 사전 풀이항의 한국어는 한글자모가 아닌 끼릴 문자로만 전사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한국어 표기법에 의하지 않고 실제 發話音을 악센트와 音長까지 고려하여 정밀전사하였다. 또 이 사전의 한국어는 한국어 방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며 異質的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東北方言, 그중에서도 六鎭方言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한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사전은 되지 못한다. 이 사전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이 사전의 편찬 동기와 목적이 다른 사전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 사전은 注釋方式이 또한 特異하다. 露韓辭典이라기 보다는 露韓露辭典에 가까운 체재로 편찬되었다. 사전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문법이 많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한국어의 體言은 '基本格'과 主格형을 일일이 제시하고, 用言은 정동사 어미 '-다' 대신에 '-기', '-게' 등을 어간에 붙여서 文法範疇를 표시한 점도 매우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類義語, 同音語 등은 지시기호를 써서 나타내었다. 또한 복합어와 파생어의 경우에는 형태소의 접합 위치에 하이픈을 두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 편찬자들이 한국어 단어를 分析的으로 이해하였다는 증거이다.

한국어를 전사한 전사문자는 「露韓會話」의 그것과 大同小異한데, 본 사전에서는 一字一音 원칙에 의거 전사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on-glide나 off-glide의 [y]는 세 개의 문자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경구개 유기 파찰음을 세 개의 문자로 전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전 편찬자들이 한국어의 음성특징을 미세한 부면까지 관찰한 결과일 것이다.

이 사전의 한국어는 카잔사범학교 재학생인 韓氏의 발음을 토대로 한 것인데, 韓氏의 이 한국어는 六鎭 方言 中에서도 鍾城 부근의 方言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 한국어는 함북 북부 방언의 음운 형태, 어휘에 대한 귀중한 기록물이자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3장에서는 람스테트의 논저 속에 들어 있는 북한 방언 어휘와 이 사전의 한국어를 비교해 보았는데, 결과 이들 북한 방언 어사들은 거의가 이 사전에서 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전재과정에서 상당수의 오류가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람스테트는 한국어의 音韻(史), 形態(史) 語彙(史) 등을 연구하면서 이 사전의 한국어 東北方言으로부터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사전의 한국어에 악센트가 정밀하게 전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악센트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 하였다. 이 사전이 발견됨으로 해서 람스테트의 한국어 연구 과정이나 方法論, 그가 수집한 북한 방언의 성격 등이 더 넓고 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논저>

고송무(1980), "세정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연구", 「한글」 169.

郭忠求(1986a), "람스테트의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의 한국어 방언", 「東泉趙健相先生古稀紀念論叢」.

郭忠求(1986b), "露韓會話", (解題), 「韓國學報」 44.

郭忠求(1986c), "露韓會話와 咸北 慶興方言", 「震檀學報」 62.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李秉根(1986), "國語辭典 編纂의 歷史", 국어생활 7.

小倉進平(1927), "咸鏡南北道 方言", 「朝鮮語」 2.

小倉進平(1931), "六十餘年前の咸鏡道方言", 「中等朝鮮語講座」.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硏究」上(資料篇), 岩波書店.

田島泰秀(1918), "咸鏡北道の訛言", 「朝鮮敎育」 2월호.

Adami, Norbert, R. (1982), "Die in Russland vor 1910 Erschienenen Materialien zur Koreanischen Sprache-Lexicalisches," in Hau: Korea Kultur Magazin, Heftz, pp. 50~60., Institut für Kor. Kultur.

Koncevich, L.R. (菅野裕臣譯註) (1971), "蘇聯의 한국어학", 「亞細亞硏究」 通卷 42,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Ramstedt, G.J. (1928),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SFOu58.

Ramstedt, G.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Ramstedt, G.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